

생활글 부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상

편견의 1%

지난 학기 사회참여수업의 과제로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한 가지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을 찾아보는 수업을 했었다.

우리 모둠은 알게 모르게 그 숫자가 늘어나 결국 한국국민의 1%가 되어버린 외국인이주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에 대해 공부했다. 처음 해보는 공부였다.

그 전까지 ‘이주노동자’ 라고 하면 전에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본 것이 전부였다. 내 눈에 비친 이주노동자는(그 프로그램에 비친 이주노동자는) MC들과 말장난치며 어눌한 한국말에 환히 웃다가도 으레 가족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거리고 사장님 얘기를 꺼내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지난 학기 학교에서 ‘여섯 개의 시선’ 이라는 유니버스식 영화를 보게 되었다. 마지막 단편인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영화를 보다 무심코 나온 한마디, ‘아.. 찬드라! 내 기억 속의 찬드라는 즐

겨보는 잡지의 책 리뷰코너 귀퉁이를 장식한 '말해요 찬드라'의 주인공 이였다. 영화 줄거리를 대강 요약하자면(실제 찬드라에게 일 어났던 일이다) 93년, 그녀는 밥을 사먹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있던 돈이 없어졌단다. 그 음식점 주인은 몇 천원 못 받았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은 외국인인 한국말 못 하는 것도 모르고 정신박약 행려자라고 정신병원에 넣어버렸단다. 그리고 정신병원과 부녀자 보호소를 전전하며 정신이 이상한 한국인 취급을 받았단다. 그 기간이 6년 4개월이다. 그리고 경찰서와 정신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모두가 그녀를 정신병자 혹은 거지로 착각하고 강제로 약을 먹었다고 한다. 여권마저 공장사장에게 빼앗겨 신분을 증명할 수도 없었는데 말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 부끄러워지고 찬드라가 한없이 불쌍해진다. 눈물이 난다. 6년 4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라면 죽지 않았을까. 사실 그 사건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백번 잘못했고 찬드라가 불쌍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이 여기에서 그쳐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를 다룬 그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알려준 반면, 이주노동자를 사회 소수 층으로 동정 받아야 할 대상으로 뭉뚱그려 보여 주었다. 이주노동자 딱지를 붙이고 타국에서 일한 경험은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이방인이 느낄 차별과 소외는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도 안다. 프로그램의 시청자들도 한번쯤은 눈시울을 붉혔으리라.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혀 차는 동정이 아니라 정당한 처우, 즉 인간의 권리가 아니었을까. 그들은 자국보다 물가가 더

높고 사정이 나은 나라의 노동에 대해 희망을 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생전 와보지도 않은 나라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주어진 만큼 일하고 주어진 만큼 받으면 될 텐데. 그들 중 일부는 운 나쁘게도 악덕사장, 업주를 만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동정은 감정만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뒤따라야 할 실천이다. 힘도 능력도 없을 때 그 때 우린 동정하고 적선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손이 잘리고 병든 몸이 아니다. 오히려 더 건장한 노동자들 이었다. 우리의 그릇된 시선과 편견이 이주노동자들을 사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난 후에 동정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사장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이주노동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동정(인간의 본능이긴 하지만)하기 전에 그들을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어두운 구석으로 방치해둔 무지한 우리의 사회를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오해와 편견으로 생긴 제2의 찬드라, 한국에서의 노동생활을 이겨내지 못해 끝내 목숨을 끊는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과 ‘정신병원’ 을 상대로 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찬드라의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즐겨보던 한 방송사의 시트콤을 보게 되었다. 평소에는 자주 깔깔거리며 본 시트콤 이었다. 티프한 여자가 김밥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녀의 물건을 망가트린 동료와 후배들에게 보상대신 김밥을 싸라고 협박한다. 평소의 스토리를 생각하고 보면 정말 코믹한 내용이었다. 김밥 싸기에 지친 동료와 후

배들은 밤새도록 김밥만 싸대는 자신들의 형편을 한탄한다.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처절한 그들이다.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어눌한 한국말을 흉내 낸다.

“누나 나빠요 내일까지 다 안하면 돈 안준다 그랬어요.”

사회수업을 한 이후로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귀가 아주 조금이나마 트인 나는 씩씩한 기분이 들었다. 당황했다. 얼굴이 움츠러 들었다. 나로 하여금 채널을 돌리게 만들었던 피날레, 이주노동자를 흉내 낸 그 대사에 부록으로 실려 나오는 듯 했던 영원히 사라질 수 없을 성우들의 웃음소리. 와하하하하. 나는 고개를 돌렸다. 채널을 돌렸다. 웃음거리의 소재는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주노동자 일까? 혹여 웃자고 튼 TV에서 그 시트콤을 본 이주노동자는 어땠을까? 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아빠가 자주 보시는 심야 개그프로그램에도 이주노동자에 관한 코너가 있다. 난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보았던 이들의 얘기를 듣자면 어수룩한 이주노동자를 주인공으로 사회의 세태를 꼬집는다는 내용이다. 그래도 개그프로그램 인지라 미묘하게 웃긴 부분이 있다고 한다. 기숙사에 같이 사는 한 언니는 정말 재밌다고 하고, 다른 언니는 너무 불쾌하다고 한다. 난 직접보지 않았지만 역시 사회에서 민감한 부분을 안방극장에서 편히 보기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남모르게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게 된다. 사회도 나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밖엔.

이제 사회를, 우리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꿔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잘못된 일에 대한 사죄와 충분한 배상은 당연한 것이다. 그에 뒤따라야 할 감정은 단순한 동정보다는 사회의

정당치 못한 처우를 바로 잡으려는 정의감이어야지 않을까? 막연히 이주노동자를 동정만 해온 나는 새로이 알게 되었다. 사회의 소중한 부분이 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정당한 처우 없이 무책임하게 느끼는 싸구려 동정이 눈물과 감동의 훈훈한 휴먼스토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난 여자였어

나는 87년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되는 여자아이로 이팔청춘 춘향이보다 나이를 벌써 두 살이나 더 먹었다. 춘향이는 열렬히 연애에 빠져서 그 시대의 한계였던 신분이라는 장벽을 그네 타듯이 뛰어넘었다지만, 나는 그저 여자고등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방학을 꿈꾸는 평범한 여고생일 뿐이다.

우리 집은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나, 이렇게 식구 넷이다. 오빠가 있지만 어린 시절 오빠와 나는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랐다. 오빠가 부엌에서 내게 라면을 끓여주거나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하는 것을 엄마가 호들갑스럽게 말리는 일은 없었다. 오빠는 남자이고 힘이 세기 때문에 나와 대등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말을 목살 당하거나, 여자라는 이유로 몸을 조신하게 놀려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나는 이제 고등학생으로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해 본 적은 없지만, 학년이 올라갈 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덧씌워진 편견들을 자꾸만 발견하게 된다.

우리 학교는 교무실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1교무실은 본관에 있는 제법 넓은 공간으로 온통 남자 선생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교무실은 널따란 복도를 따라 쪽 걸어가면 건물 끝에 붙어있는데, 여기엔 새로 온 남자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선생님이다.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눈에 많은 것이 밟혔다.

남자 선생님은 한 사람당 각자의 책상이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은 두 사람이서 한 책상을 쓸 때도 있었다. 과학실이나 체육장고, 양호실 같은 교내 여러 공간들에 대한 책임자는 항상 남자 선생님이요, 실제로 관리를 맡는 사람은 여자 선생님이었다.

우리 학교는 정보여자고등학교로 내 또래의 학생들도 수업을 들지만 어른 반이라고 하여 우리 엄마 또래의 주부들도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온다. 학교에는 본관과 별관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거리는 열심히 뛰면 쉬는 시간을 겨우 맞출 수 있을 정도이다. 본관에서는 우리들이 수업을 듣고 별관에서는 어른들이 오후에 수업을 듣는다. 신기했던 것은 이 어른반 수업을 맡는 선생님은 모두 여자 선생님들이다. 수업을 마칠 때쯤 되면 별관을 향해서 애를 쓰며 뛰어가는 여자 선생님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여선생님은 이중, 삼중의 업무를 떠맡으면서도 항상 남자 선생님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는다.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웬만한 남자 선생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여자 선생님도 여자는 리더십이 없다는 식의 편견에 갇혀서 힘없이 뒤로 처지는 모습을 종종 볼 때는 더더욱. 그 뿐인가. 수업시간마다 몇몇 선생님들은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준다. “여자가 말이야~”로 시작 되는, 일자리가 다 무엇이나고, 집안일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등의 시대착오적인 말들도 서슴없이 수업시간에 나오곤 한다.

한창 성장기인 반 친구의 컷볼을 이상한 손길로 쓰다듬거나 꼬집는 남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른 여학교 친구에게서 들을 때면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억울하기까지 하다. 얼마 전 희대의 연쇄살인범이 잡혔을 때, 그 희생양은 대부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성매매 종사 여성이었다. 심지어 이 연쇄살인범이 잡히고 난 뒤에는 노래방 도우미들을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는 모방범죄가 저질러진 적도 있다. 남자들이 만들어 낸 그 성문화에 분노해야 할 것은 오히려 여성인데, 남성들은 철저히 이중적인 시선으로 여자를 평가하려고 든다.

언젠가 서점에서 『섹시즘-남자들에 갇힌 여자』라는 책을 눈여림으로 넘겨본 적이 있었다. 인상 깊었던 분석이 있었는데, 바로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에서는 남성이 항상 먼저 쓰이지만, 비하하는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의 비속어에서는 항상 여성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다. 남녀평등이라든지, 소년소녀, 신사숙녀와 같은 말이 그러하다. 그런데 소설책에 나오는 ‘연놈’이라든지, 동물을 가리킬 때의 ‘암수’라는 말에서는 항상 여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먼저다. 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 속에서도 여성에게 덧씌워진 왜곡된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위에서 점차로 한 발짝씩 진보를 이루어왔다. 비록 아직까지도 경쟁사회

의 논리 속에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 받고 있지만,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권력에 항거하다 투옥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둘씩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 민주주의의 길은 언제나 한 발짝 더 요원하다.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도 남성에게 투표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주어질 때에도 여성은 예외였다. 근대화와 더불어 여러 국가에서 민주화가 시작되던 것은 역사가 꽤 오래된 일이었지만, 여성 모두가 투표권을 획득한 것은 겨우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70년대 사람들이 넘어야 할 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하고 참담한 노동환경이었다. 그것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었다.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고, 수많은 여공들은 탄압에 항거해서 알몸시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넘어야 할 장벽은 독재였다. 그것 또한 누구나 함께 손잡고, 때로는 업어주고 일으켜주며 함께 걸어간 길이었다. 그래서 나는 민주화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룩해온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내 주위를 세심히 살펴보면, 민주화의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을 때가 많다. 여성은 남성을 내조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성의 상품이 되어버리는 여성의 모습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의 전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더 많다. 성공한 여성

들이 유명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여성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것은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내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한 발짝 담글 때 더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나는 정말 여자였다'고. 그러나 나는 간절히 바란다. 그것을 부디 자긍심으로 느낄 수 있기를. 남녀평등은 여자가 우위에 서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인식이 자연스러운 세상. 남성에게 지워진 사회적 무게와 여성에게 지워진 사회적 무게를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세상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한다.



복순이 언니의 다이어리

“누나, 다음 주에도 꼭 와...!”

티없이 맑은 눈을 가진 상민이를 바라보았다. 함께 가지고 놀며 만지작거리던 상민이의 키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 놓은 블록탑.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 층에 쌓아 둔 블록을 상민이에게 건네주며 대답을 대신했다.

‘다음 주에도 꼭 올게...’

상민이는 다리가 약해서 다리를 지탱해 주는 보조 기구가 없으면 움직이기 불편한 꼬마다. 내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한손으로 나의 손을 꼭 잡고 반대 편의 다른 손은 벽에 설치된 보조대를 꼭 짚고 일어나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뺐으면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 할 일은 척척 일어서 하는 똑똑한 아이이다.

상민이를 만나게 된 건 작년 겨울 동아리 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찾아간 재활원에서였다. 고만고만한 다섯 살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한참 활기차고 호기심으로 무럭무럭 자라

나는 아이들의 방..

보통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주로 봉사 활동을 관공서나 가까운 일반 보육원과 같은 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나는 동아리에 들어오고 나서 동아리 안에서 꾸준히 해오던 재활원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상민이와 같은 작은 꼬마 아이들부터 우리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까지,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재활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규모가 꽤 큰 재활원이라 청소와 목욕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버스 안에서 즐기 십상이었다. 나보다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친구들은 이제 재활원 봉사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요즘에는 재활원에서 자기를 잘 따르는 아이들을 보러 간다고 자랑하거나 동아리 원들이 아닌 친구들과도 재활원에 종종 간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이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목욕시켜 드릴땐 적적해 하시고 무료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말을 꺼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의사 표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친절함 미소나 안마로서 지친 일상을 풀어주어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이 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목욕이 끝난 후에 언니 방에 초대해서 손수 십자수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주셨다. 봉사 활동을 하게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터라 언니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는 것이 무척 고마웠다.

엄마의 생일 선물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십자수 본을 보여주며 예쁘지 않냐고 물어보셨다. 언니는 장애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눈을 부비시면서도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해 보이는 십자수를 하겠다며 바늘에 손을 댔다. 눈이 침침해서 조금만 해도 눈이 아프다면서도 싱긋 웃어 보이는 언니의 표정에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 열심히 십자수를 하고 계시는 언니의 곁에서 방 구경을 하고 있던 나를 부르시더니 엄마의 사진을 보여 주신다고 책상 서랍에 있는 다이어리를 꺼내 오라고 하셨다. 다이어리의 중간 부분에 끼워져 있는 사진에는 꽤 젊어 보이는 한 여인이 서있었다. 그 옆에 아이들도 있고... 혹시 이게 언니인가? 사진 속 주인공의 옆에 기대어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가 언니예요?”

“아, 이거 언니 아냐. 애는 엄마 아이들이야. 예쁘지?”

지난 번 생일에도 십자수 해서 보냈는데 엄마보다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 그러시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은 언니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자원 봉사자라고, 친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헤어지셨다고 했다. 언니의 이름도 원래는 복순이가 아닌 다른 이름이었고 ‘복순’이라는 이름은 재활원 선생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했다.

가정이 있는 분들은 방학 때에 집으로 가지만 가정이 없으신 분들은 방학 때도 재활원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외부와 맞닿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TV와 전화뿐인데, TV는 밤에는

취침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틀어 놓지 못하고, 대신에 외로움을 달래어 줄 전화기도 전화할 친구가 마땅치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봉사활동을 다녀간 사람들에게 조금 정이 들고 말도 많이 나누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 하면 대개는 핸드폰이 없다고 하거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도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럴 때 마다 섭섭하고 슬프다고 이야기 하셨다. 먼 곳에서 재활원까지 자원 봉사활동을 온 사람들마저 그 분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 같았다. 한국 장애인 인권 현장(1998)에는 장애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인권 현장 이전에 법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약자로 소외받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현실을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소홀히 여기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걱정 되었다.

집에 갈 시간이 되어 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방문을 나서려 할 때, 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내 앞에 내 놓으신 것은 작게 적은 전화번호가 가득 적힌 다이어리와 수정 싸인펜이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십자수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언니가 생각나, 혹시 전화하려다가 전화번호를 보시지 못하실까봐 나는 수정 싸인펜으로 크고 진하게 몇 번이나 덧칠해서 번호를 적어드렸다. 언니의 전화가 수줍게 걸려오길 기대하며...

‘언니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커 밍 아 웃

동성애

동성애란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이 자신과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임. 성 지향성이란 마음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단순한 성적 취향과는 구별된다. 동성애는 동성을 향한 지속적인 감정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끌림을 수반한다. 즉, 단순히 동성과의 성경험이 있다거나 동성과의 성행위 자체를 동성애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동성이나 이성과의 어떤 개인적인 성적 경험이 반드시 그를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성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이성애자임에도 동성과 성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어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향을 고쳐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성과의 성적인 경험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군대, 교도소, 기숙사 등의 이성과 차단된 환경에서 이성애자들이 경험하는 동성과의 성 접촉도 드문 일은 아니다.

게이

동성애자를 뜻하는 긍정적이고 일반적인 말(이것도 미국의 경우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장남자를 게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게이’라는 말은 원래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게이’의 어원은 ‘기쁘다’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1960년대 이후 서구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결과로 사용하게 되었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심각히 부족한 사회에서는 여장 남자나 성 전환자를 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따로 있다.

퀴어(queer)

사전적 의미는 “기묘한, 이상한, 괴상한”임.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이 “queer”는 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동성애 운동의 방향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동성애 운동가들에 의해 적극적, 긍정적으로 수용된 단어이다. ‘gay’가 남녀 동성애자만을 뜻한다면 ‘queer’는 남녀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이성애 제도에서 소외된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한다. 즉 퀴어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 전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반

‘이반’의 어원은 불확실함. 하지만 확실한 것은 종로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스스로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 아마도 ‘일반(一般)’이라는 단어에서 ‘이반(二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임. ‘이반’이라는 단어 속에는 일반과의 구별, 냉소적인 자기 비하, 은밀함이 담겨있다. 어쨌든 ‘이반’은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만

들어낸 동성애 관련 은어 가운데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일 것이다. ‘二般’이 ‘異般’으로 바뀌면서 그 의미가 확대된 것은 이정우 씨를 비롯한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서이다, ‘異般’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성적소수자를 뜻한다.

난 게이이다. 일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호모고, 퀴어이며, 이반이다.

난 남자를 사랑한다. 내가 남자이면서 같은 남자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얘기한다. 나 같은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변태라고 욕하고, 무시하며, 나 같은 사람들 자체를 부정하려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와 같은 이반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을 숨기며 사는 것이다. 아니 자신을 부정하며 사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 헌법에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모두라는 말에는 우리가 속하지 않는가 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에 우리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어린 나이에 나의 정체성을 알게되었기 때문이다. 주위에 결혼까지도 하고 나이를 먹은 후에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에 비하면 난 행복한 것이다. 적어도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는 않으니까..

난 지금까지 딱 한번을 제외하고는 내가 이반이라는 것을 후회

한 적이 없다. 그 딱 한번도 나도 어쩔 수 없는 짝사랑 때문이었다. 단지 숨기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신을 부정 할 수가 없어서 라는 이유는 내겐 없다. 그 정도로 난 내 자신에 대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느낀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직장, 친구,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이반들에게 커밍아웃은 그렇게 커다란 일이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그런 이유에서 난 지금까지 딱 한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물론 웹상에서는 많은 커밍아웃을 했지만 실제로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것은 딱 한번뿐이다. 웹상에서의 커밍아웃이야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니 조금만 용기가 있어도 가능하지만, 현실세계는 그렇지 않다. 지금부터 난 내가 유일하게 한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다. 물론 그 친구는 일반이다. 이성애자이고, 다수에 속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대부분의 다수와 다른 점은 소수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 친구와 고등학교 때는 그리 친하지 않았다. 어찌다보니 1학년을 같은 반에서 보냈고, 같이 문과를 지망하다보니 2학년 때에도 같은 반이 되었다. 아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둘 것은 그 친구는 나의 이상형이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게이들은

동성이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반들이 자신의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더 까다롭다. 자신의 이상형에 어느 정도라도 근접하지 않으면 상대도 하지 않는다. 그 녀석은 평범한 외모에 적당한 키, 그리 튀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은 생각이 깊다는 것….

그 친구와 친해진 것은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비슷했던 것이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좋아하는 음악도, 취미도, 성격도 비슷했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3학년이 되어서 서로 힘들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정을 만들었다.

사실 나에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정체성을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인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도 가끔씩 만나 술이라도 한잔 할 때면 언제나 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대화의 주제로 삼았고, 그 친구도 그에 대해 관대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가 이런 태도를 보일 때에도 난 많은 고민을 했다. 사실 일반인들 중에 말로는 게이들을 다 이해한다면서 막상 자기 주위의 사람이 게이라는 것을 알게되면 그 동안 말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자신이 먼저 그 사람을 냉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 되어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 그렇게 서로 다른 생활을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나는 군대를 갔다. 군대를 간 후에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전화도 하고, 편지도 자주 주고받았다. 그런 그의 마

음이 고마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에게 미안했다. 웬지 내가 그를 속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다.

그리고 2년 2개월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 때에도 계속 예전과 같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어느 때처럼 같이 만나 맥주바에서 간단히 맥주를 시켜 먹고있었다.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던져진 그의 한마디...

“난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네 애인이라고 말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의 그 한마디는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기쁨이었지만 고민이 되기도 했다. ‘이 녀석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당시 난 ‘정말?’ 하고 그냥 이야기를 얼버무렸다. 아직 나의 마음 속에서는 마지막 창이 남아있었기에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휴대폰이 없었기에 그 친구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락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또 흘러갔다.

사실 나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 한 명 있다. 하지만 그는 일반이었고, 약간은 호모포비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내 사랑은 바라만 보는 사랑이 되었다. 그리고 그를 잊기 위해 많은 남자들을 만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하지만 그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잊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했다. 누군가를 사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내가 진정 사랑한 그 사람도 사실 나의

이상형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지만, 그 사람을 1년 넘게 보아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었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리고 그 기회에 난 나의 진정한 친구에게도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뭐해? 우리 만나서 술이라도 한 잔할까?”

“응, 나 사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우린 한 작은 소주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가 먼저 술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난 그때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이 일 때문에 친구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며 나의 얼굴에 고민의 기색이 역력했는지 그가 먼저 물었다.

“무슨일 있어?”

“응, 나 아까 전화로 이야기 했듯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다.

“뭔데? 왜 그렇게 뜸을 들여? 빨리 말해봐.”

“응, 네가 저번에 내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애인이라고 해도 너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했었지?”

“응,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응, 나 사실 게이야 그리고 나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한동안의 침묵

몇초간의 시간이 몇 년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말문이 열렸다.

“진짜야? 그 사람이 누군데? 물론 좋은 사람이겠지?”

“응.”

“정말로 내가 너에게 한 말처럼 난 널 이해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을 해 주는 그가 너무 고마웠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내가 친구 하나는 정말 잘 사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 소주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그 날을 같이 보냈다.

다음날 그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그렇게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더 나눈 후 헤어졌다. 일은 그 후에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 녀석에게서 연락이 끊겨 버린 것이다. 그 친구에게는 휴대폰이 없었기에 난 연락 할 방법이 없었다. 난 속으로 많은 후회를 했다. 그렇게 난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 이렇게 나에겐 또 하나의 상처가 남는 줄 알았다.

세월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심히 흘러갔다. 그 사이 난 예전에 사랑했던 그를 끝내 잊지 못해 그 때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 나에겐 상처만이 더 생겨 버린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잘 지내지?”

“야! 너 뭐 한다고 그동안 연락도 안 했어? 응? 걱정했잖아!”

“응, 뭐 이것저것 일하느라고 넌 그 애인과 잘 지내고 있어?”

“아니, 나 헤어졌어”

“그래? 그렇구나”

점점 작아지는 친구의 목소리 나는 알고 있다. 말은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도 막상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니 그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멋지게 그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을. 난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정말 기뻐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진정 나를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한 시점부터 우리는 예전의 관계를 회복했다. 아니, 그전보다 더 친해졌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니까 그 이후에 그 친구는 휴대폰을 장만하고 나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는 등 나에게 더 신경을 써 주었다. 그런 그가 나는 한없이 고맙기만 했다. 그렇게 나의 첫 번째 커밍아웃은 성공을 거두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나는 예전부터 나 자신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친구가 있다.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짝사랑하던 그를 잊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그 친구와는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낸다.

난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커밍아웃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이반들이 커밍아웃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실패의 경우가 더 많기에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왜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멀리하는 것일까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문제로 많은 이반들이 괴로워한다. 그리고 자신을 숨기고 언제까지나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에게 세상은 너무나 모질다.

미국의 한 퀴어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자신을 끝내 인정해 주지 않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대사를 한다.

“지옥불 속에서 영원을 고통 받는다고 해도, 당신과 천국에서 하루를 같이 보내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는 이런 대사를 했을까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사실이고 정말로 지옥이 있고, 그리고 이반들은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자신을 속이고 천국에서 하루를 사느니 차라리 영원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낸다고 해도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이것은 동성애가 단순히 이상 변태성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짧은 방황도 아니며, 정신이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즐기며,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똑같이 사랑한다. 단지 사랑하는 상대가 동성일 뿐이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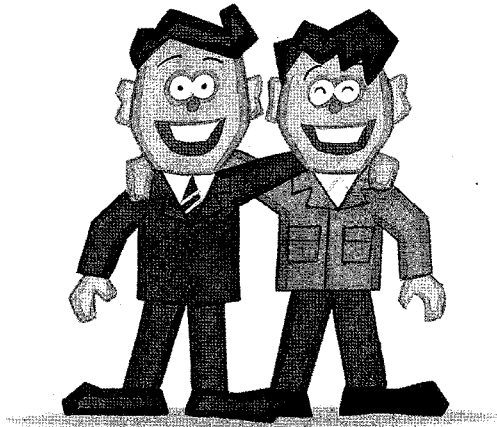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동성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일 뿐이다”

오늘도 나는 꿈꾼다. 다수의 일반 사람들과 우리 성적 소수자

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세상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이다. 모두가 조금만 노력하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 진정으로 모두가 행복해 지는 세
상을 위해.



사랑받는다는 것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구루병이라는 병을 안고 태어난 지체 장애 인입니다. 사실 저에겐 장애인이라는 말이 낯설기만 합니다. 다리 만 조금 불편하다 뿐이지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져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맛벌이를 하셔서 외할머니께서 병간호를 해주셨습니다. 한 시간 거리를 매일 같이 오셔서 손녀 곁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계셔서 아파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가장 소중한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은 매일 등교시간이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씌워주고, 바람이 많이 부는 추운 날에는 선뜻 장갑을 벗어 목발을 짚는 저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또, 특기 적성을 하는 날에는 저를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기다려 주기도 했습니

다. 뿐만 아니라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힘들 땐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하고, 기쁠 땐 마치 자기 일처럼 더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알고 도와주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방학을 하면 한번도 빼놓지 않고 포항에서 양산으로 전학 온 저를 찾아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그 동안 혼자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같이 해주기도 합니다. 참 많이 싸웠지만 그때마다 저를 이해해주고 매일 저를 위해 기도 해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고맙기만 합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아이들 뿐인데 그 중 한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 왔습니다. “안녕? 우리 밥 먹으러 같이 가자.” 그 날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는 한번도 빼놓지 않고 제 급식을 받아 주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동수업이 있을 때면 제 책을 함께 들어주고, 항상 저를 챙겨줍니다. 이렇게 저의 곁엔 고마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신문반을 합니다. 신문반 활동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좀 더 당당한 나로 변하게 했습니다. 사실 신문반 활동은 생활의 활력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재미를 찾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 선·후배, 그리고 선생님께 고마울 따름입니다. 제가 신문반에 들어온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 실기 시험을 손으로 할 수 있는 배구나 농구 등으로 시험을 칩니다. 체육 선생님의 배려로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나마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저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예뻐 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열심히 하라는 선생님들의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밖에 버스기사 아저씨는 지폐를 내면 거스름돈을 직접 집어 주시기도 하고, 버스에서 내릴 때면 조심해서 내리라고 신경 써 주시기도 합니다. 또 버스에 자리가 없으면 학생, 아저씨나 아주머니께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 주기도 하고, 같은 방향이라며 차를 태워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있어 저는 한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은 도움의 손길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 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나는 축복 받은 사람이고 사랑 받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는 모든 분들이 있어 저는 밝게 웃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남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내가 받는 사랑만큼 베풀자고. 그 누군가도 나처럼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움 받는 것처럼 다시 베풀자고 말입니다.

